

Greeting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대매회가 1971년 창립되어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창립을 주도하신 안경모 초대회장님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창립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양강 다목적댐을 비롯하여 많은 댐이 건설 운영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댐기술을 바탕으로 한국대매회도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한국대매회는 한때 ICOLD(국제대매위원회) 소식과 한국대매회 행사 및 회원 동정 소식 등을 담아 '대매회보'를 발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회원들에게 시사성 있는 정보를 더 자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1999년 12월 제 33호를 마지막으로 '대매회보'의 발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님들께서 '손에 쥐고 여유있게 읽을 수 있고, 이를 보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게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주셨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된 한국대매회 활성화 노력 속에도 정기간행물의 발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대매회는 정기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학술위원회에 위임하여 검토한 끝에 제34호를 다시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그 명칭은 '대매회지(KNCOLD Magazine)'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기사를 많이 포함시킴으로서 보다 유익한 회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단은 1년에 한번 발간을 목표로 정기간행물의 발간이 추진되었지만 앞으로 회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이 있다면 연2회 이상의 발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매회지'의 재발간이 우리 한국대매회의 역사를 보전해 나가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지면을 통한 보다 폭넓은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우리나라 수자원 및 댐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발간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대매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댐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대매회지를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사)한국대매회 회장

